

채점 총평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완전히 놓친 답안보다는 주요 논점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 1의 스톡옵션제는 대체로 “약정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종업원 동기부여” 정도는 잘 서술한 편입니다. 다만 고득점 답안과 중위권 답안의 차이는 도입목적·특징·유형·문제점을 얼마나 정형화된 채점 키워드로 제시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문제 1에서는 인센티브 스톡옵션과 주식평가보상권을 구분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관계 일치, 대리인비용 감소, 우수인재 확보, 현금보상 부담 완화, 장기성과 유도까지 제시한 답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유형 항목을 누락하거나, 문제점을 추가하락에 따른 의욕 저하 정도로만 서술한 답안은 점수가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주·채권자 이익 침해, 단기성과 집착, 외부시장요인으로 인한 보상과 실제 공헌의 괴리까지 제시해야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문제 2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점수 차이를 크게 만든 문항입니다. 많은 답안이 제 1 공정은 복률성과급제, 제 2 공정은 할증급제라는 대분류는 비교적 잘 맞혔습니다. 그러나 하위 유형 선택에서 감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 1 공정은 반복적 조립작업, 개인별 생산량 측정 가능, 작업방법 표준화, 우수 작업자 생산성 향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테일러식 복률성과급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제 2 공정은 기본임금 보장, 작업시간 단축 측정 가능, 회사 부담 완화라는 조건 때문에 할시식 할증급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상위권 답안은 단순히 제도명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메리크식이 아니라 테일러식인지”, “왜 로완식이 아니라 할시식인지”를 사례 문구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위권 답안은 제도 일반론은 알고 있었지만, 사례의 핵심 표현과 하위 유형을 정확히 연결하지 못해 점수가 제한되었습니다.